

“‘혼군’이 국정 운영… 모든 불법은 청와대에서 시작”

〈특검·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

‘최순실 청문회’ 지상 토크 국민의당 김경진-이용주 의원

대담=최권일 정치팀장

사상 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 문란의 실상을 파헤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구성됐던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활동을 마쳤다. 이번 국정특위에서는 수차례 청문회를 열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특위 위원으로 선정된 국민의당 김경진(북갑), 이용주(여수갑) 의원은 상당한 성과를 올려 주목받았다.

광주일보는 지난 22일 두 의원으로부터 국정농단의 실태를 들어보고 재발 방지대책 방안을 살펴 보았다.

-청문회 통해 본 국정 난맥상이 심각했다.

▲김경진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정신줄이 없었거나 아니면 정신줄을 놓고 대통령직을 수행했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니었겠느냐.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와 결합된 것이다. 결국 이런 흐리멍덩한 ‘혼군’(昏君)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폐해가 극대화된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난맥상을 보면 불수폭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을 통해 없애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가장 첫 번째다. 권력 구조의 개헌을 내각제로 가든 의원집행부제로 가든 지금처럼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다각제도로 빨리 바꾸는 게 대한민국 사회 필요하다는 게 굵직한 결론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이번 청와대 블랙리스트를 보면 관련 부서만 여러 곳이 있다. 문체부와 국정원, 경찰 등. 이 모든 게 하나로부터 시작됐다. 바로 청와대다. 문제는 청와대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이 실재 있었다.

문체부도 그랬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검찰도 임 닦고 방조하고 있고 이 와중에 국정원도, 경찰도 그

관련된 방조를 했었다.

결국엔 각 국가기관들이 제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불법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청와대 내부 구성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청문회라든지 인사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문제점이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법무부장관을 통한 검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해선 안 된다. 현 구조상 청와대 불법은 관리감독할 수 없다. 청와대에서 법무 검찰을 관리하는 부서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민정수석 업무에서 구분해서 떼어내야 한다.

-청문회 이후 ‘쓰까요정’, ‘버럭요정’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의도된 것이었다.

▲김경진=반어법이다. (증인들이) 끝까지 부인하니까 그냥 그게 너밖에 없지 않느냐. 정황을 나열해 준 것이다. 그런데 단어 끝에 ‘했을까’라는 말이 사투리가 섞이다보니, ‘쓰까’로 바뀌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의도치도 않았다.

김 “김영한 비망록 꼼꼼하게 잘 써 놔 크게 도움”

이 “조운선 좀더 다그치면 말하겠다 느낌 들었다”

▲이용주=처음부터 작성한 것은 아니었다. 조운선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조운선 장관이 작성했고 관여했다. 은폐에도 관여했다’는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지 은폐했는지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 ‘블랙리스트 아느냐, 있느냐’를 물어봐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아니다”고 하니까 그 다음 것을 물어볼 수 없게 되니까..

이날 조 전 장관은 (청문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동행명령장 집행을 직접 하러 가겠다고 한 것을 (조 전 장관

이) TV에서 본 뒤 나오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나오자마자 제 앞에 두 의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또 사과 성명 비슷한 것을 발표하고 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물어보니 부인하더라. 근데 검사를 오래 해보면 부인의 강도를 보면 느낄 수 있다. 좀 더 밀어서 다그치면 나오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또 부인을 하자) 세 번째부터 이것 끝장을 보자. 가끔씩 소리를 쳐 가면서 언성도 높이고 말을 중간에 끊기도 하면서 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자백을 받는데,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으

이 “김기춘 유신 시대 머리 남아 자백 안할 것”

김 “질문시간 조정·증인 강제출석 청문회 개선을”

로)공부를 많이 했느냐.

▲김경진=저도 보고 보좌관들도 보고 이용주 의원실도 마찬가지다. 다 그것만 보면서 이상한 것들 찾아내기 위해 전력했다. 김영한 선배가 깨알 같이 꼼꼼하게 잘 써놔다.

▲이용주=우리 특조위원중 제가 먼저 원본 전체를 다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했다. 처음에 잘 써먹었다. 그 자료를 얻고 난 다음에 보니, 양도 많고 보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정말 보고예요 보고. 거기에 다 나오 있다. 안종범 전 수석도 제가 수첩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꼼꼼하게 써놔으면

본인이 자기 수첩을 증거물로 부인했겠느냐.

-청문회 마치고 난 뒤 아쉬운 점은.

▲김경진=이번 청문회에서 17명이 (질문을) 돌아가면서 했다. 질문 한 번 하려면 16명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소위로 쪼개어야 했다. 9명씩 2개 소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6명씩 3개 소위로 쪼갰다든지. 이게 제일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구조였다. 두 번째는 소위를 나누면서 테마별로 쪼갬으면 좀 더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용주=청문회 이름이 ‘박근혜·최순실 청문회’인데, 두 명 다 나오지 않았

다. 이게 맹점이다.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이 박 대통령인데, 우리가 청와대 현장조사를 했지만 사실상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국회에서조차 청와대를 성역으로 남겨놓고 접근을 못해 아쉽다.

또 최순실을 직접 청문회로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제도적 한계다. 본인이 안 나온다 버티면 안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은 입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운선 전 장관이 구속됐는데, 찢값을 치를 것으로 보느냐.

▲이용주=제가 보기엔 무조건 찢값을 치를 것이다.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 여부, 묵인 여부 이에 대해서 명확히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남은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해야만이 역사의 죄를 더는 부분인데, 김 전 실장은 유신시대의 머리가 남아 있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자백한 다면 조 전 장관이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리=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김경진, 김기춘·우병우 궁지 몰아… ‘쓰까요정’ 별명 얻어

국조특위 청문회가 ‘맹탕’이라는 비판 속에서 김경진 의원은 치밀한 조사와 차분한 질문 태도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적힌 ‘인양하면 안 된다, 정부 부담 가중된다, 늦춰야 한다’는 글

을 보여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겠다”라고 질타해 고개를 떨어뜨리도록 했다.

특히 그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떼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독일에 있던 최순실이 검찰의 사무실 압수수색 정보를 어

떻게 알았을까, 대통령이 알려줬을까, 우 수석이 알려줬을까, 검찰총장이 알려줬을까”라고 질문해 우 수석을 당황케 했다. 김 의원은 특유의 ‘~쓰까’(~했을까의 전라도 사투리) 발음으로 화제가 된 후 네티즌으로부터 ‘쓰까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용주, 조운선에 18번 질문 ‘블랙리스트’ 자백 받아

이용주 의원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모르쇠’로 일관하던 조운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5분간 무려 18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에

게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추궁해 결국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 피의자를 다루는 듯한 모습으로 조 전 장관을 몰아붙였다. 줄곧 ‘모르겠다’,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을 회피하던 조 전 장관을 이 의원은 끈질기게 같은 질문만을 던지는 방법으로 궁지에 몰아 넣었다.

조 전 장관은 이 의원의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예술인들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두 손을 들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후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예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상담문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분양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